뉴시티교회 리딩지저스

2026.9.21.-9.26

연대기순 성경 통독 38주 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3~12장, 에스라 1~6장, 시편 137편, 학개서, 스가랴 1장

글 오종향

뉴시티교회

여는 글

사랑하는 뉴시티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추석 연휴와 겹칩니다.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고향으로 가고 가족을 만나는 동안, 통독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에 이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 궁정에서 풀무불과 사자굴을 지나고, 목요일에 고레스의 조서가 내려 칠십 년 만에 귀환이 시작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돌아온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기초를 놓고 성전을 세웁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추석으로 쉽니다. 대신 주일에 월요일 본문으로 다시 모입니다.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고백한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불 속에 함께 서신 분, 단 3:16-25). 그 불 속에 넷째 사람이 서 계셨습니다.

명절에 흩어져 있어도 말씀 안에서 함께 걷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눈에

9월 21일 (월) ·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9월 22일 (화) · 새벽에 굴로 달려간 왕

9월 23일 (수) · 책을 읽다가 무릎을 꿇다

9월 24일 (목) ·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

9월 25일 (금) · 울음과 환호가 섞이던 날

9월 26일 (토) ·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왼쪽 면에서 말씀을 읽고, 오른쪽 면에 응답을 적으며 한 주를 걸어가십시오.

9월 21일 (월) | 다니엘 3~5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세우고 절하라 명령했을 때, 세 친구는 거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3:17-18). 일곱 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왕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네 사람이 불 가운데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3:25). 4장에서 왕은 교만하다가 짐승처럼 살다 돌아왔고, 5장에서 벨사살은 벽의 글씨를 보던 그 밤에 죽었습니다.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세 친구는 하나님이 건지실 줄 믿었지만 한 문장을 더 붙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과를 하나님 손에 두고 절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에서 건지지 않으셨습니다. 불 속에서 건지셨습니다. 불을 끄시지 않고 불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넷째 사람이 그들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 넷째 사람이 마침내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심판의 불에 홀로 들어가셨고(눅 12:50),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을 지나도 그분이 곁에 서 계십니다(사 43:2). 이번 주일, 바로 이 본문 앞에 섭니다. 오늘 내 풀무불 곁에 서 계신 그분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9월 21일 (월) ·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9월 22일 (화) | 다니엘 6~7장

새벽에 굴로 달려간 왕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약점으로 잡았지만, 다니엘은 조서를 알고도 전과 같이 하루 세 번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6:10). 사자굴에 던져지고 돌로 입구를 막고 왕의 도장으로 봉인했습니다(6:17). 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에 굴로 달려가 외쳤고,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6:22). 7장에서 다니엘은 구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나라를 받는 환상을 보았습니다(7:13-14).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여든 살 노인이 사자굴에 던져졌고, 돌이 굴을 막았고, 권력자들의 도장이 그 돌을 봉인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무덤이었습니다.

새벽에 왕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서 대답합니다. 다니엘을 굴에 넣은 권력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돌로 막고 도장으로 봉인한 무덤이 하나 더 있습니다(마 27:66). 그 무덤도 새벽에 열렸습니다. 다니엘은 사자를 피했지만 예수님은 사망의 사자 입에 들어가셨다가 살아 나오셨습니다 (시 22:21).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9월 22일 (화) · 새벽에 굴로 달려간 왕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9월 23일 (수) | 다니엘 8~10장

책을 읽다가 무릎을 꿇다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8장의 환상 뒤, 9장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가 칠십 년 만에 끝난다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9:2). 그 순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9:5).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안고 간구하자 가브리엘이 칠십 이레의 계시를 전했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알렸습니다(9:26). 10장에서 그는 강가에서 세마포 입은 이를 보고 엎드렸습니다.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다니엘은 약속을 발견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지 않고,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에서 우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다니엘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고백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죄인들 틈에 자기를 세웠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자기 죄처럼 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십자가까지 갔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습니다. 지금도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히 7:25). 다니엘의 무릎이 이번 주일 강단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하여 무릎을 꿇어 기도한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9월 23일 (수) · 책을 읽다가 무릎을 꿇다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9월 24일 (목) | 다니엘 11~12장; 에스라 1장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다니엘 11장의 남방 왕과 북방 왕 이야기는 12장에서 구약의 가장 분명한 부활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12:2). 그리고 에스라서가 열립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조서가 내렸습니다 (스 1:1).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칠십 년 전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의 마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굳게 하시고 고레스의 마음은 물길처럼 돌리신 분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귀환은 새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이웃이 은금과 물품을 들려 보냈습니다(1:6).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한 자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약속이 마침내 한 분에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많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고후 1:20). 귀환의 조서가 고레스의 입에서 나왔다면, 영원한 귀환의 조서는 십자가에서 나왔습니다. 명절에 고향으로 향하며, 나를 부르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9월 24일 (목) ·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9월 25일 (금) | 에스라 2~5장

울음과 환호가 섞이던 날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2장). 그들은 주변 민족이 두려웠지만 먼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3:3). 성전 기초를 놓던 날, 젊은이들은 크게 환호했고 옛 성전을 본 노인들은 크게 울어서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3:12-13). 대적들의 방해와 왕에게 보낸 편지로 공사는 십육 년 동안 멈추었습니다(4장).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으로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5:1-2).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두려운 사람들이 성벽보다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안전보다 예배를 앞에 두었습니다. 기초를 놓던 날, 잃어버린 영광을 아는 사람은 울었고 새 시작을 보는 사람은 소리쳤습니다.

명절에 고향 식탁에 앉으면 이런 날이 옵니다. 돌아온 기쁨과 빈 자리의 슬픔이 한 상에 놓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들이 놓은 기초 위에 결국 예수님이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그 기초라고 하셨습니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전 3:11). 무너진 자리에 다시 놓인 기초, 그 위에서 울고 웃는 명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9월 25일 (금) · 울음과 환호가 섞이던 날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9월 26일 (토) | 에스라 6장; 시편 137편; 학개 1~2장; 스가랴 1장

이 성전의 나중 영광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성전이 완공되고 백성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스 6:15-19). 시편 137편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던 날을 노래했습니다. 학개는 멈춘 공사를 두고 물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학 1:4). 백성이 순종하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셨고(1:13),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2:9). 스가랴도 외쳤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슥 1:3).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자기 집은 잘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은 열여섯 해 동안 기초만 쌓았을 뿐이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은 더 급한 일이 있다는 말이었고, 벌어도 구멍 난 주머니에 넣는 삶이 그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성전을 두고 하나님은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하셨습니다. 노인들이 울었던 그 작은 집을 두고서 말입니다.

그 약속대로 어느 날 이 성전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자기 몸을 성전이라 하셨고(요 2:21),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셨습니다(마 12:6). 나중 영광은 금과 은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내일 주일, 불 속에 함께 서신 그분 앞에 섭니다. 미루어 온 순종이 있다면 오늘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오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9월 26일 (토) · 이 성전의 나중 영광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